

경찰, 사이버테러팀 대거 투입

경찰이 불법촬영·유פו 수사에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해 곧바로 삭제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도 가동된다.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16여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들은 그동안 주로 대규모 해킹사건, 다크웹 사건 등을 전담해 왔다.

불법촬영물 자동탐지·삭제 시스템 가동 해외기반사이트 수사 위해 국제공조 강화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 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시민단체·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범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몰가 범죄를 감시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와 함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도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유관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방심위 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삭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재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지원센터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불법 유관사이트나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

물들을 자동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빠르면 오는 10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에도 수사력이 미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과 공조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동유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에서 우리 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의지를 알리고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스

중 여성, 키 작다고 교사자격 탈락

중국의 한 여성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陝西)성 사법대에서 지난 4년간 영어 교사의 꿈을 키워온 여성 리모 씨는 키가 150c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했다.

BBC는 산시성 매체인 '산시 뉴스 온라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산시성 지역에서는 칠판에 글씨를 쓸 정도의 키가 되어야 하며 교사 자격에 키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시성 이외에도 아직도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키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리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리씨는 지난 2014년 산시성 사법대학교에 영어 전공으로 입학해 교사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산시성에서 교사가 되려면 남성은 155cm, 여성은 150cm 이상이 돼야 한다는 키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리씨의 키는 이보다 10cm 작은 140cm였다. 그녀는 언론 매체에 "지난 4년 동안 아무도 키 제한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교사가 되려는 꿈이 산산 조각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중국 쓰촨(四川), 장시(江西), 광시(廣西)성 등지에서는 교사 키 제한 기준을 철폐하기도 했다. 그러나 리씨의 학교인 산시성 사법대학교는 현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 시나웨이보 등에서는 키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나 '재능'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교사는 능력과 자질로 뽑혀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미인대회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139명 태운 인도네시아 페리 전복...24명 사망

인도네시아에서 승객 139명을 태운 한 여객선이 악천후로 좌초해 전복되면서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및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여객선 KM 레스타리 마주 호는 승객 139명과 오토바이 및 차량 48대를 싣고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 인근 해안에서 악천후로 좌초했다.

선장은 선박의 침몰을 막기 위해 선체를 얕은 지대로 몰고 승객 대다수의 목숨을 살렸지만,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바다로 뛰어든 승객 가운데 24명은 익사해 사망했다.

1만 7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안전 규칙 시행 미흡 등으로 여객선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18일 목재 여객선 KM시나르 방운호는 190여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수마트라 섬 토바 호수에서 전복돼 가라앉았다.

이 여객선은 정원이 43명에 불과한 나무배지만 당시 배에는 이보다 5배 많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심 수대의 오토바이도 적재돼 있었다. 당국에 따르면 이 가운데 21명만 살아남았다. 사망이 확인된 것은 3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승객은 선체에 갇힌 채 순식간에 수심 420m지점으로 침몰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리핀 북부서 시장이 오토바이 괴한에 피살

필리핀에서 3일 전날에 이어 또 한 명의 시장이 길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고 경찰이 말했다.

이날 북부 누에바 에시자주 제네랄 티니오 시의 페르디난드 보테 시장이 차를 타고 청사를 나가는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자가 피스톨로 시장을 여러 차례 쏘았다. 남자는 도주했다.

앞서 전날 마닐라 남쪽의 타나우안 시의 안토니오 할리리 시장이 직원들과 국기 게양식을 하면 국가를 부르던 중 저격 당해 사망했다.

이같은 안토니오 할리리 시장 살해의원은 이런 시장 살해들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아래서 형성된 '폭력의 문화' 탓이라며 필리핀이 "아시아의 살인 수도"가 됐다고 한탄했다.

	湖南新聞 湖南日報	湖南新聞 湖南日報	湖南新聞 湖南日報
--	--------------	--------------	--------------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 강화...벌금 3000만원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주에 대해 벌금형이 최고 3000만원까지 오르는 등 형사책안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이는 입국 허가 없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지난해말 25만4041명 대비 6만8305명이 늘었다.

이 중에서도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20일 태국에서 열린 한·태 이민청간 실무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날에는 태국 외교부·노동부와 연석회의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태국 측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태국 이민청·노동부간에 한국내 불법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요청했다. 태국 측은 ▲불법체류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숙박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뉴스스



시원한 광화문광장 쿨 스팟 제7호 태풍 '쁘라삐룬(Papiroun)'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4일 오후 서울 중로구 광화문 광장 쿨 스팟에서 외국인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익산국토청, 전남 섬지역 교통망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남지역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남도는 4일 오후 신안군청에서 '섬지역 교통망 구축 타당성 확보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익산청은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지난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섬지역 교통망 구축 타당성 용역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서남해안 섬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 주민 편의 개선 등을 위해 국도 노선 중 아직 연결되지 않은 해상 구간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요 연구용역 지역은 여수와 신안의 미개통 국도 구간이다.

여수는 국도 77호선 화태도~개도~백야도 11.7km 구간을 연결할 경우 여수 뿐만 아니라 고흥과 순천시 여저만 권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은 국도 2호선 장산도~후포도 36.3km 구간을 연결하면 관광 수요 증가는 물론 교육, 의료, 치안 등 주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박지형 박사는 "지난해 11월 개통한 장보고대교는 단순히 신지도와 고금도를 연결하는 효과를 넘어서 완도~강진~해남의 교통망까지 크게

늘어났다"며 "섬지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평가에서는 이런 연계 효과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타당성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섬지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연륙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목포 여수 신안, 고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전남도의회, 광주전남연구원,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남규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